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 현대시에 나타난 「백두산」 Motif의 시적 상상력

이 기 철*

< 目 次 >

I. 서론

II. 본론

1. 몇 가지 전제
2. 장르선택과 주제의 형상화에 대한 조건
3. 한국에서의 「백두산」의 문학적 형상화
4. 북한 및 중국 조선족에 있어서의 「백두산」의 문학적 형상화
5. 서사시 「백두산」

III. 결론

<요 약>

「백두산」의 시적 승화는 우리의 근·현대시사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주제이자 심상이다. 그것은 「백두산」이 단순한 '산'의 이미지나 모티프를 넘어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 현대시(이를하여 큰 우리 문학)에 나타난 「백두산」 소재의 시를 가능한 한 집성하고 그 시들에 나타난 주제, 심상, 의미들을 분류, 해석하려 했다.

그리하여 본고가 도달한 결론은, 한국의 현대시에서는, 백두산의 ① 민족의 영산으로서의 숭엄함과 '아버지 심상' ② 조국의 분단에 대한 한탄과 속죄의식, ③ 90년대 이후 「백두산 관광」에 대한 비판과 회화화 등의 시적 표현들을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현대시에서는,

* 영남대학교 학국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①에 해당하는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 현대시에 있어서는 ①과 ②의 시가 혼합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백두산」을 소재로 하는 서사시로는, 북한에서는 조기천의 「백두산」이, 남한에서는 고은의 「백두산」이 각각 한 편씩 있을 뿐이다. 위 두 편의 장편 서사시는 항일 독립 투쟁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후자는 같은 내용이긴 하되, 그 양(量)만으로도 전 7책, 약 5만행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으로 명실 공히 한국 현대시사의 큰 맥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Poetic imagination of 'Bekdusan' motif in Korean, North
Korean, China Korean modern poetry

by Keechul, Lee

Poetic sublimation of <Bekdusan> is most great and heavily theme and image in our history of recent or modern poetry. because, Bekdusan's meaning is beyond motif or image of simple 'Mountain' and Direct connection destiny of our race and nation.

This Thesis is Korean, North Korean, China Korean modern poetry <Bekdusan> motif, as possible as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and interpretation the poems theme, image, meanings.

Thus, to sum up conclusion of this Thesis, as for Korean modern poetry <Bekdusan> is ① Sublimation of holy mountain of race and 'imagination of Father' ② Regret and Atonement of dividing of homeland. ③ Beside, Nineties, Critic and Comic of 'Bekdusan tourism' As for, North Korean modern poetry, main current above ① group

poetry and China Korean poetry aspect of mixing above ① and ② group.

Especially, 'Epic of Bekdusan' is, as for North Korean Cho,Kichun, as for Korean Ko,Un, above two epic of long piece is reflect history of resistance of Japan and fight of independence. Above all, Later is constitution as quanyity as 7 books and about Fifty thousand line. It is both nominally and virtually, formation of big vein in history of Korean modern poetry.

I. 서 론

백두산¹⁾만큼 영원한 문학적 주제도 없다. 우리가 「겨레」라든지 「민족」이라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만큼 「백두산」이라는 문학적 주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특수한 역사와 지정학적 조건에 처해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적 정서에 동화하고 있는 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책무이자 요구라 할 수 있다.

백두산에 관한 문학적 표현은 언제나 주제의식이 앞선다. 그것은 백두산이 던지는 민족사적인 선형성과 정신사적인 외경감에 그 큰 이유가 있다. 민족사적인 선형성이나 정신사적인 외경감이 앞서는 문학이라면 그것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도 없이 그것이 지니는 신화적 절대성, 겨레의 근원적 회향성(回鄉性), 신앙이라고 말해도 좋을 종교적 귀의 의식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백두산에 관한 문학적 표현은 어찌면 문학 이전의 것이고 문학보다 크고 무거운 삶의 근원에 잇닿아 있는 명제라 할 수 있다. 문학보다 크고 무거운 것, 문학보다 무거운 삶의 근원에 닿아 있는 명제의 문학적 표현은 으례히 장엄함과 엄숙함, 비장함과 승고함으로 채색된 문학의 체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처음부터 주제에의 압도가 노정하는 문

1) 본 논문은 2000년도 영남대학교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학의 이념적 형상화가 있는 반면에 시적 승화의 약화라는 결함이 도사리고 있음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현대 시인들이 다투어 백두산을 노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백두산이 지니는 「아버지 심상 Father Complex」과 그것을 노래함으로써만 메꾸어질 수 있는 아버지 콤플렉스에의 보상 심리가 개재해 있다는 이유를 쉽게 지적할 수 있다. 그 보상은 필연적으로 「민족적 아이덴티티 National Identity」 혹은 주체정신의 표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그 의식은 또한 한국의 근대사가 지니는 역사적 과정에의 속죄의식이며 그러한 속죄의식은 분단이 가져다 준 역사적 질곡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의 근·현대문학에서만도 백두산에 관한 시가 헤아리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며 설령 아직은 백두산에 관한 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 속으로는 누구나 한 번쯤 그것을 소재로 한 시를 생각한 경험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그것에 대한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신적 부채감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자체가 고대 이래로 수많은 외침과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라는 점과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이 대부분 백두산과 압록강을 경계로 한 지역에서 발발했다는 점,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불리어질 수밖에 없는 백두산을 소재로 한 노랫말들이 동요라는 형식으로까지 형상화되어, 유·소년 시절부터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가르쳐 왔다는 사실에 크게 힘 입는다.

본고는 그러한 사실을 기저로 하여, 지금까지의 백두산을 주제로 했거나 소재로 한 시들을 가능한 한 모두 수집, 편록하여 그 시들의 종별, 성격, 주제의 체현 양상, 역사적 소명의식, 시사적 의미 등을 두루 살필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 발표된 백두산 소재 시들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일명 연변문학)의 시까지를 포함한다.

II. 본 론

1. 몇 가지 전제

한국 근·현대시사에서 백두산을 소재로 한 작품을 모두 수집하거나 편록한다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힘겹고 번다한 일에 속한다. 그것은 비단 수량의 다과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백두산」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 자체가 한국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고 더욱이 백두산은 한국의 분단사와 그 상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점 「백두산」은 민족의 분단과 그 아픔의 대용어이자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의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1988년의 해금, 나아가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발표된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의 작품까지를 모두 찾아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며 어쩌면 그것의 완전 편록은 불가능한 일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내의 문학에서 백두산 소재의 시들을 찾는 일은 노력만 기울인다면 가능한 일이고 수교 이후의 중국 조선족 문학에서도 이 점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도 우리가 직접 조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지역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문학에서의 백두산 소재 시들은 현재로서 파악 가능한 일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유보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출판된 「백두산」을 제명(題名)으로 한 시집으로는 최문종의 『백두산』(1960년)과 나병기의 『백두산 가던 길』(1979년) 두 권이 있으나 이들 시인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시집 역시 산실되어 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도 고려에 넣을 수밖에 없다.²⁾

2. 장르선택과 주제의 형상화에 대한 조건

그러나 제목과 같은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시대 혹은 동

2) 한국시대사전, 올지출판공사, 1987

시대에 쓰여졌던 기억할만한 백두산 소재의 시들을 전거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백두산 소재의 시들을 집대성한다는 일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몇몇 작품들을 기억한다는 일은 이 논의를 한층 의미있게 해 주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을 소재로 한 시는 백두산을 주제로 한 시와 그 내용이나 정신이 힘들지 않게 일치한다. 그것은 소재가 주제의식을 포용하고 주제가 소재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재와 주제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 관한 시가 그 형상화에 있어서 단일하거나 표충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동일한 소재와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따르는 시대와 지역과 시인의 개인적인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시인 각자가 갖고 있는 문체와 표현의 차이, 작품 표현에 따르는 디테일의 차이 혹은 미묘하고 복잡한 작시상의 의도의 차이 때문이다.

여기서 시대가 다르다는 것은 분단 이전에 쓰여진 글과 분단 이후에 쓰여진 글이 그 형상화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한국에서 쓰여진 시와 북한에서 쓰여진 시, 그리고 중국 조선족 자치주(연변지방)에서 쓰여진 시가 그 양태상 다르다는 것, 그리고 시인의 감수성이 다르다는 것은, 시적 대상인 백두산을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느꼈으며 어떻게 그 느낌을 형상화했는가 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대와 지역의 문제는 작품의 생산에 관여한 사회 혹은 역사적 조건이 되며 시각과 느낌의 문제는 창작의 동기화(Motivation)와 창작심리(Writing Mind)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런 점, 창작의 동기화와 창작심리의 문제는 공식화하거나 구조화할 수 없는 난제 중 난제임을 감안해야 한다.

시인의 개인적인 감수성의 문제는 나아가 시의 주제화와 연결되거나 시인의 의식과 이념적 지향성과 연결되게 되는데 시의 주제화와 이념적 지향성을 담는 형식의 필요는 구극적으로 시의 장르 문제, 곧, 서정양식의 채택과 서사양식의 채택으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귀결된다.

서정양식의 채택은 다시 백두산을 민족의 상징으로 육화한 경우와, 백두산에 대한 사죄의식의 발로를 체현한 경우, 그리고 90년대 이후 백두산 참

관이 여행의 봄을 타고 유홍화한 사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발로를 담고 있는 경우로 나타난다.

서사 장르의 채택은 기실 이 논의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함께 지니는데 그것은 그 분량의 방대함이나 무거운 주제의식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매우 민감한 사상적 문제, 역사 해석이라는 다분히 정략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일이어서 비중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논의에 숙고를 요하는 문제가 된다. 더욱이 서사시의 작자 중 한 사람은 스탈린식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김일성 유일사상을 교시받고 그것을 체현한 북한의 중요시인이라는 점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³⁾

3. 한국에서의 「백두산」의 문학적 형상화

백두산에 관한 근·현대사의 문학적 표현은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白頭山謹參記」에서부터 시작된다. 최남선은 알려진대로 국토에 대한 애정이 넘쳤던 선각자이고, 그리하여 그는 이를 바 그의 국토탐방기 『심춘순례尋春巡禮』에서 한반도 방방곡곡을 찾아 다니며 그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천언만사로 노래한 문인이지만 그의 「백두산근참기」는 그 연면한 정서와 섬세한 관찰과 넘치는 문장과 풍려한 어휘들이 현금의 문인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다.

가고가도 여전히 밀립지대이다. 하루쯤으로야 우리의 장원심밀(長遠深密)한 지미(至味)를 다 알겠느냐 하는 듯, 이깔나무의 장림(長林)은 여전히 그 끝밋한 맵시와 싱싱한 빛과 짹빡한 숟으로써 사람의 턱 밑에 종주먹을 댄다. 이제는 여간 송락(松絡)의 전당만으로 지리한 생각을 얹제키 어려울 만하고, 좀더 단조로 나가다가는 이 장림이 행려의 뇱속(牢獄)처럼 생각도 될 듯하여, 행여 우리 백두산님께 조그마한 구설이라도 돌아갈까 겁을 내었 더니, 이것을 모르실 하느님이 아니시라, 여기 대한 준비가 진작부터 조금도 허루치 아니하였다. 하마 싫증

3) 북한에서 나온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 날쌘 한 대목에 이르러 일대 변화가 마침 등대(等待)하고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불나불한 입술을 놀랄 줄을 주지 아니하였다.
최남선 「백두산근참기」, 서두 부분⁴⁾

백두산의 삼지(三池), 천리(千里) 천평(天坪)을 둘러보고 쓴 이 글은 1927년에 발표된 기행수필로써 같은 해 발표된 최남선의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과 함께 우리민족의 역사가 백두산에서 발원한다는 사상을 더욱 심원하게 밀고 나간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정작 우리의 논의 대상인 시문학이 아니지만 백두산에 대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피력한 글로는 초유이고 전범이 될 만한 것이기에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상으로 볼 때, 분단 이전에 쓰여진 백두산 소재의 글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여기서는 다만 분단 이후의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며 이후 취급될 모든 작품은 창작연대나 발표 연대가 모두 분단 이후의 작품임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단 이전의 백두산 소재의 글이 소략한데 반해 분단 이후의 같은 소재의 글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단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백두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며 그 그리움은 개인적인 그리움이기 이전에 민족적 통한과 민족사적 상처로서의 백두산이라는 정신적 투영이 시문학으로 체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현대시를 통해서 본 결과일 뿐, 북한에서 쓰여진 백두산 시편이 어떠한 모습을 띠며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백두산 소재의 시로서 조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과 동기춘의 서정시 「백두산 우에 눈보라 칠 때」, 그리고 윤병규의 「백두산의 진달래」 세 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부분은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수정해 나갈 것이다.

중국 조선족 문학 즉, 연변문학을 우리문학으로 통합할 때, 한국문학도 우리문학의 한 부분, 한 지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문학만이 우리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분의 진실성에 그치

4) 최남선 「백두산근참기」, 소재영 편 조선일보사, 1989

는 일이며 큰 우리문학⁵⁾이 되려면 북한문학 및 중국 조선족문학이 우리문학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연의 논리를 전제하는 것이다. 한국문학은 지역적으로 우리문학의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문학의 전체를 삼는다는 일은 더 중요한 부분을 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문학과 중국 조선족문학이 우리문학에 포함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된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각종 발표기관을 통해 백두산 소재의 시들을 많이 발표했다.⁶⁾ 입수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고은의 전작 장편 서사시『백두산』

그리고 단편적인 서정시들로는,

박봉우의 「백두산」
이근배의 「백두산 천지」
유안진의 「백두산 천지에서」
김종해의 「백두산 가는 길은 슬프다」
오탁번의 「백두산 천지」
임영조의 「백두산에 오르다」
이기철의 「天山」
나태주의 「놀러오는 백두산」
허형만의 「백두천지」
고형렬의 「백두산 안 간다」
김용범의 「나비편지」
이향지의 「어머니의 산」
등이다.

서사시로 노래된 백두산 소재의 시로는 조기천과 고은의 것이 대표적이지만,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뒷 장으로 미루기로 하고 단편적인 서정시들을 먼저 살펴보면 그것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다. 그 하나

5) 이 용어는 이미 조윤제가 『한국문학사』에서 사용한 바 있다.

6) 여기서 논의되는 시인 외에도 백두산에 관한 시를 쓴 시인이 다수 있겠지만 자료조사의 한계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필자의 손에 입수된 작품만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는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서의 백두산 노래’다. 그것이 민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시들은 백두산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외경을 나타낸다.

높고 넓은
또 슬기로운
백두산에 우리를 올라가게 하라
무궁화도
진달래도
백의에 물들게 하라
서럽고 서러운
분단의 역사
우리 모두를
백두산에 올라가게 하라
박봉우 「백두산」 부분⁷⁾

내 어린 볼기에 푸른 손자국 남겨 첫 울음 울게 한 어머니의 어머니
쑥냄새 마늘냄새 삼베적삼 서늘한 손길로 손님이 듣 내 뜨거운 이마
짚어주던 할머니의 할머니가 백두산 천지 앞에 무릎 끓은 나를 하늘
눈 뜨고 바라본다 백두산 맷부리가 누리의 첫 새벽 할아버지의 흰 나
룻처럼 어렵고 두렵다

오타번 「백두산 천지」 부분⁸⁾

산에 올라 산 잊듯 나를 잊으니
몸이 봉 뜯다, 비로소 내가
한낱 티끌임을 알겠다
지자동(知者動) 인자정(仁者靜)을 이제 알겠다
한 여름 햇볕인데 얇게 바래서
덮어도 추운 홀이불 같아
저 아래 두고 온 세상
문득 그립다
임영조 「백두산에 오르다」 부분⁹⁾

서럽고 서러운/분단의 역사/ 우리 모두를/ 백두산에 올라가게 하라, 는 박봉우의 통한은 백두산이 지니는 민족 분단의 아픔과 회한을 대표하는 절규 이지만, 백두산 맷부리가 할아버지의 흰 나룻처럼 어렵고 두렵다, 는 오타번

7) 박봉우 시집 「휴전선」, 정음사, 1957

8) 오타번 시집 「1미터의 사랑」, 시와시학사, 1999

9) 임영조 시집 「흔들리는 보리밭」, 문학사상사, 1996

의 백두산에 대한 외경감이나, 산에 올라 산 잊듯 나를 잊으니/ 비로소 내가 / 티끌임을 알겠다, 는 임영조의 경외감 또한 박봉우의 그것에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민족의 영산이라는 선입견이 시 이전에 시인의 뇌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탓이며, 어렵사리 찾아와 한 맷힌 산의 위용을 보는 시인의 정감이 그것을 더욱 신령스럽게 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단군설화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상징이요 성산(聖山)으로서의 백두산을 바라보는 시인들의 의식은 찬미와 동경의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이 시들은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속죄의식으로 백두산을 바라본 시이다. 거기에는 펼연코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개재한다.

눈부셔라
꿈길을 밟고
남북을 오가던 그대
나는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저 여인의 아들이었다고
더는 말할 수 없구나
어머니의 호수 옆에 와서
더는 세상에 속일 수 없구나
이근배 「백두산 천지」 부분¹⁰⁾

용서치 마시어요
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참배하지 못하는
못난 거례의
너무 큰 종교 백두산 천지여
유안진 「백두산 천지에서」 부분¹¹⁾

연길에서 용정으로
용정에서 화룡현을 지나
청산리를 지나
백두산 가는 길은 슬프다
남의 땅을 밟고 오르는 백두산
김종해 「백두산 가는 길은 슬프다」 부분¹²⁾

10) 「한국문학작품선」, 한국문예진흥원, 1995

11) 유안진 시집 「누이」, 세계사, 1997

12) 「한국문학작품선」, 한국문예진흥원, 1995

누구는 환웅의 산이라 하고 누구는 단군의 산이라 하지만
 나는 주름 많은 내 아버지의 산, 어머니의 산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자고새가 날아가는 곳이 북쪽이라도
 나는 북쪽이 서럽지 않습니다
 푸른 물살이 가닿는 저 쪽이 북쪽이라 했으니
 나는 지금 남의 땅을 밟고 있는 것이겠군요
 이기철「天山」부분¹³⁾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참배하지 못하는, 혹은, 남의 땅을 밟고 오르는 백두산을 이 시들은 못난 겨레의 후손들이라고 속죄한다. 그것은 비록 그 산의 영험 앞에서만 무릎꿇는 것이 아니라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통한과 아픔이 함께한 속죄이다. 그것을 다만 시인이 시의 언어로 대신 말해준 것일 뿐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상식이지만 시인의 감정으로 보면 새로운 슬픔이요 각오를 동반한 깨달음에 값한다.

그러나 1988년 월북문인의 해금과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의 백두산 가는 길은 지난한 일은 아니게 되었고 그러기에 백두산에 가지 않고 백두산을 만나는 길이 있음을 시인들은 우의적(寓意的) 혹은 풍자적으로 노래 한다. 거기에는 민족의 발원지인 성산에 대한 외경이 아니라 일종의 놀이와 유홍으로서의 백두산행에 대한 비판과 야유가 다음 시들에서처럼 함께 한다.

돈의 마련이 없어 나는 백두산에 가지 못한다. 돈이 마련되었다 해도
 아이엠에프시대라서 남들 눈치 보느라 못간다. 혁사리 백두산에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백두산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어하는 꿈을 버리지
 도 못하는 나를 위하여 백두산이 가끔 내게로 놀러 온다. 백두산에만
 있는 바람과 햇빛들 데리고.....

나태주「놀러오는 백두산」부분¹⁴⁾

또 평양에서 오늘 아침, 포목점을 하는 숙부도
 백두산 가자고
 서울 조카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해주를 가는 길에 역에서 건단다

13) 「Emerge」2호, 중앙일보사, 1999

14) 「창작과 비평」창작과 비평사, 1998, 가을호

내가 거길 가느니 속초나 갔다 오겠다고
일본 미국 영국을 생각하며
난생 처음 코웃음을 쳤다
고령렬 「백두산 안 간다」 부분¹⁵⁾

4. 북한 및 중국 조선족에 있어서의 「백두산」의 문학적 형상화

북한과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표된 백두산 소재의 시들을 완전하게
집성하는 일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더욱이 북한에서 발표된
「백두산」시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입수하는 일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기에
이 지역의 시들은 현재까지 조사된 몇몇 시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간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이 부분,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논의를 첨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과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표된 시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
조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

단편적인 서정시로는

동기춘의 「백두산 우에 눈보라 칠 때」
윤병규의 『백두산의 진달래』

중국 조선족 자치주(연변)
김파 「백두산 천지 가에서」
남상수 「백두바위」
신창수 「백두시초」
리복 「산이 운다」

그러면 북한과 연변의 시인들이 바라본 백두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눈보라.....

15) 「한국문학작품선」, 한국문예진흥원, 1996

해는 저만치 하얗다
꿈결인양 씻은 듯 파란하늘
견뎠구나 기쁨에 넘쳐 돌아보니
백두산이 나를 안고 있었더라

오 그 순간에 심장을 치는 생각
이렇듯 백두의 품이
그 언제나
우리 운명을 안고 오지 않았던가
동기춘 「백두산 우에 눈보라 칠 때」 부분¹⁶⁾

햇빛 따르는 진달래 밝은 웃음에
내 생의 자육자육을 비쳐보는 마음
그대 위한 진정에 한 점 터라도 있다면
마주 웃기 차마 부끄러우리

아 어제도 오늘도
때없이
백두의 눈비 속에
기꺼이 서보는 내 마음아
윤병규 「백두산의 진달래」¹⁷⁾

어느 천신의 삽자국인가
하늘 정수리에 고인 호수

바람이 투명한 발로 건늠
깨어지는 거울 쪼각들의 아픔
고요가 말없이 다시 주어 모으면
성좌가 내리여 그려지는
하느님의 풍경화
김파 「백두산 천지 가에서」 부분¹⁸⁾

성산에서 태어나
몸과 살은 갈라져 살아도
늘 성산에 안겨 사는
네야말로 백두의 아들
남상수 「백두바위」 부분¹⁹⁾

16) 「조선문학」, 1985, 3

17) 「조선문학」, 1990, 3

18) 「천지」, 1998, 7

19) 「연변문학」, 1999, 3

백두의 위병대인양
름름해라 미인송 미인송
미끈한 기상 당당도 한데
오를수록 장엄한
백두의 경관
신창수 「백두시초」부분²⁰⁾

들리는가
산이 우는 소리
윙- 윙-,엉-엉-
백설이 덮인 산이 정말 운다
리복 「산이 운다」 부분²¹⁾

위의 시 가운데서 「백두산 우에 눈보라 칠 때」는 1985년, 「백두산의 진달래」는 1990년 3월, 북한의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이며 「백두산 천지 가에서」는 연변에서 간행되는 문학지인 『천지』 1998년 7월호, 「백두바위」, 「백두시초」 「산이 운다」는 1999년 『연변문학』에 발표된 작품으로 모두 최근의 작품들이다. 지역적으로는 북한과 연변에서 발표된 작품이지만 이 작품들은 내용상이나 표현상 큰 차이가 없다. 역시 백두산의 신성성과 위용, 어버이 같은 엄숙함과 자애로움을 노래한 내용들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들은 한국에서 쓰여진 백두산 시 가운데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서의 백두산'의 노래와 동일한 유형의 작품들로 보아 무리가 없으며, 그것은 곧 북한이거나 연변이거나 한국이거나 간에 백두산 앞에서는 종교적 신성성과 민족적 동질감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물론 이같은 북한과 연변문학에 대한 잠정적 평가는 아직 그 부분의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된 것으로 자료가 보완되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 「연변문학」, 1999, 7

21) 「연변문학」, 1999, 4

*한국, 북한, 연변에서 발표된 「백두산」 시 목록

제 목	작가(시인)	발표연도	발표지	국명	종별	참고
백두산	최문종	1960	미상	한국	서정시	확인불능
백두산가던길	나병기	1979	미상	한국	서정시	확인불능
백두산	박봉우	1957	휴전선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어머니의 산	이향지	1991	문예중앙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 천지	이근배	1995	작품선0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 천지에서	유안진	1997	누이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가는 길은 슬프다	김종해	1995	작품선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 천지	오탁변	1999	1미터의 사랑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에 오르다	임영조	1996	흔들리는 보리밭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天山	이기철	1999	Emerge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놀려오는 백두산	나태주	1998	창작파비 평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안간다	고형렬	1996	작품선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나비 편지	김용범	1999	연변문학	한국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	고 은	1987-1994	백두산	한국	서사시	확인가능
백두산	조기천	1947	조선문학 통사	북한	서사시	확인가능
백두산우에 눈보라칠때	동기춘	1985	조선문학	북한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의 진달래	윤병규	1990	조선문학	북한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산천지 가에서	김 파	1998	천지	연변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 바위	남상수	1999	연변문학	연변	서정시	확인가능
백두시초	신창수	1999	연변문학	연변	서정시	확인가능
산이 운다	리 복	1999	연변문학	연변	서정시	확인가능

5. 서사시 「백두산」

백두산을 노래한 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방대한 작품으로는 조기천의 『백두산』과 고은의 『백두산』이 있다. 조기천의 『백두산』은 북한에서, 고은의 『백두산』은 남한에서 발표된 백두산 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그 두 편 모두 형식상 장편 서사시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두 전작 장편 서사시는 조기천의 것은 한 권의 분량이지만 고은의 것은 7권, 약 6만행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이다.

서사(敍事)란 본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서사시라는 문학적 장르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서사시의 유형은 대체로 민족 서사시와 예술 서사시로 나누어지는데 민족 서사시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역사 서사시와 개인의 정감과 예술적 의식에서 쓰여지는 예술 서사시로 유분될 수 있다. 「일리아드」 「오딧세이」(호머)나 「니벨룽겐의 노래」(독일의 민족시)처럼 민족과 생활을 노래한 서사시이면서도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대상을 그리는 서사시가 전자에 속하고 「아예네이스」(버어질)나 「실락원」(밀턴)처럼 개인적인 사상과 예술의식을 바탕으로 한 서사시는 후자에 속한다. 조기천과 고은의 『백두산』은 전자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조기천은 북한문학사의 시기 구분에서 '평화적 건설 시기'라고²²⁾ 일컬어지는 1945년~1950년 사이에 활동한 시인이며 그의 『백두산』은 1947년에 완성, 발표된 작품이다. 『조선문학개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조기천이 김일성의 교시를 받고 수차례의 김일성과의 접견을 통해 창작된 것이다. 작품은 전 7장의 각 장과 머리시, 맷음시로 이루어진 9개 장의 구성으로, 머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의 노래²³⁾이고, 1장에서 7장까지는 서릿발 날리는 백두 밀림을 굽어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전법으로 왜 병들을 섬멸한 이야기와 항일 유격대를 도와 나선 철후와 꽃분이, 그리고

22) 「조선문학통사」,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59

23)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인동, 1988), P.115

인민들의 활동의 노래이며, 맷음시는 조선의 양심이고 신념이고 희망인 경애하는 수령님을 맞이한 감격의 노래²⁴⁾이다. 조기천은 이 서사시의 「머리시」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는 감회와 조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 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의 선혈로 뒹굴었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몇 만의 지사 밤길 더듬어
 백두의 밀림 찾았더냐?
 가랑잎에 쪽잠도 그리웠고
 사지를 문턱인 듯 넘나든 이 그 뉘냐?
 산아 조종의 산아 말하라--²⁵⁾

이같이 분단된 조국의 역사를 한으로 노래하거나 조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오른’ 죽은 자의 몸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인의 식민지 조국에 대한 비통한 한과 비극적 역사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의 시적 전개 또한 독자를 압도하는 응혼성과 대서사의 장정이 시적 문체를 통해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이 서사시는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에게 영웅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보천보 전투에서의 승리를,

밤바다 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짚고 웨치는
 절세의 영웅, 김일성 장군!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았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²⁶⁾

24) 같은 책, p.116

25) 조기천 「백두산」, 머리시, 부분, 실천문학사, 1989

라고 노래한다. 그러기에 『조선문학개관』은 이 시를, ‘조선인민의 지향과 네원을 한 몸에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었으며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우리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사상을 깊이 있게 반영한 시’라고 평가한다. 항일의 위업을 달성한 한 개인에 대한 찬양 뿐 아니라 그 위엄에 동참한 철호, 꽃분이, 그리고 다수 인민의 노력을 찬양하는 이른바 민족서사시라는 평가다. 한 개인에 대한 칭송과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의 무비판적인 인유(引諭)는 이 서사시의 결함으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학인 한 이 작품의 시적 승화와 그 평가에는 인색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고은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은 분량의 압도 때문에 전권을 독파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의 등장은 내용의 파악과 줄거리의 이해에만도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도중에서 길을 잊을 정도다. 시인 자신이 말했듯, 이 시를 시인은 백두산에 가보지 않고 자료와 대본에 의해 쓴다.

1980년 겨울 육군 교도소 특별 감방의 어둠 속에서 이 시를 구상했고.....1985년 봄 무표정의 실무로 이것을 쓰기 시작했으며 『실천문학』에 2회 연재 후에 전작으로 바꾸어 제 1부 1. 2권을 책으로 내고 다시 4년만인 1987년 10월 제2부 1.2권을 내었으며.....1994년에 마지막 권을 내었으니 이 일을 끝내는데 어느덧 10년 세월이 밀돌았다²⁶⁾

10년 세월 동안 한 편의 작품을(물론 고은은 이 기간 동안 『만인보』도 함께 쓴다) 쓰기 위해 전력투구한 산물인 『백두산』은 이 분야의 업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이 전작에는, 바우와 김옥단,(바우는 항일 유격대원으로 묘사된 이 전작의 주요 인물) 심억만, 강천일, 박갑돌, 염길수, 방해철, 윤종남, 김병찬, 정소만, 오방근, 이길동, 유칠성, 조원숙, 박신우 등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과, 한용운, 한용운의 아들 보국(保國), 최남선, 이동휘, 장술생, 임춘추, 김일성, 양정우, 김돌석, 홍범도, 최명록, 구춘선, 안묵, 지청천, 유돌석,

26) 윗 책, 6장 6항

27) 고은, 서사시 「백두산」, 1권, 3권, 5권, 머리말

주세죽, 정종명, 허정숙, 이강훈 등 해방 공간에 활동한 주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가 하면, 낭인대(浪人隊), 마적 견습부대, 호남 의병, 봉오동 전투, 청산리 싸움, 유격대, 동북 항일련군 빨치산, 보천보, 우동불 등 수많은 독립군 이야기가 간단없이 펼쳐진다.

이 전작은 조기천의 『백두산』과 같이 주로 항일 독립군의 활동에 시각이 맞추어져 있지만, 조기천의 작품 보다는 스케일이 광범하고 묘사도 구체적이다. 이 전작에서 다루어진 인물의 활동과 사건의 흐름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는 역사학 쪽에서 검증할 문제이지만, 해방공간의 항일활동을 시로 그린 작품으로는 이 작품 외에 달리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조기천의 『백두산』이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상과 그 활동에 참가한 철호와 꽃분이, 그리고 H시 전투의 승리, 보천보 전투의 장면과 승리를 경축하는 내용이고 고은의 『백두산』은 바우와 김옥단(독립운동의 여성 지도자)의 활동, 봉오동 전투, 어랑촌, 청산리 싸움, 보천보 승전 등을 노래한 내용으로, 시의 큰 내용으로는 조기천의 작품과 비슷하다. 그러나 고은은 전작의 마지막을 역사적 인물에 할애하지 않고 김옥단이라는 가공의 인물(작품상으로는 여성 지도자)에 할애한다. 그것은 작품의 문학적 승화와 여운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이 전작이

음희 2년 무신년 1월 강추위 판인데
 경기도 양주 양수리
 두 갈래 남한강 북한강 합수진
 그 바다같이 드넓은 강물에 일음 꽉 차
 이 때 13도 창의군 결사대 3백 3십명
 대장 허위 장군의 진두 이어
 질풍노도 나가니²⁸⁾

와 같은 서두 부분에 이어

압록강 하구 의주에서
 또 하나의 의거가 성공했다

28) 윗 책, 2권, p. 221

그 의거란, 봉오동 승전과 또 다른 것
1920년 정월 초사흘(.....)
영어의 나날 기다리는 독립군 87명이
그 감옥을 파하고 뛰쳐나왔다
고스란히 압록강 건너
누구 하나 탈없이(.....)
그곳 무관학교 사관생도 3백명과 함께
새로운 사기가 솟아올랐다
그 탈옥 독립군이 일본군 밀정을 따돌려
별씨 이도백하(二道白河)지경에 와있는
국민회군 홍범도 부대와 만나.....²⁹⁾

와 같은 묘사로 일관하여 지루한 역사적 서술을 되풀이 하다가,
김옥단의 죽음에 이르러,

김옥단! 그녀는 눈에 덮여
끝없는 것은 여기만이 아니다
그녀는 온몸 식어
눈 쌓여
눈무덤에 묻혀
조국이 너무 멀고 멀었다
날 저물어가는 어둠에 묻혀³⁰⁾

와 같은 패이소스로 끝을 맺는다. 고은은 이 전작의 여정에서 끝없는 이야
기꾼으로서의 역사학도였다가 이에 와서 가까스로 시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III. 결 론

「백두산」의 시적 심상은 우리의 근, 현대사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아픈
부분의 시적 승화에 값한다. 그러기에 그것은, 한 비평가의 표현 대로, 만지
면 만질수록 덧나는 상처다. 그 부분이 덧나는 상처인만큼 시인들은 그것을
의경스럽게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그것의 표현에 연연해 왔다. 그러므로 「백
두산」의 시화는 이제 우리 근, 현대사의 재구(再構)에 값하는 일이 됨과 동

29) 윗 책, 5권, PP.147-148

30) 윗 책, 7권, 마지막 부분

시에 우리의 문학적 역량을 재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확인된 「백두산」에 관한 시는, 한국에서는 서사시로 1편, 서정시로 11편, 그리고 미확인된 시집 2권이 있고 북한에서는 서사시 1편, 서정시 2편, 중국 조선족 문학에서는 서정시 4편이 조사, 확인되어 이 글에서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자료 조사가 더 진행되면 시의 분량은 증폭할 수도 있지만 수량이 증폭한다고 해서 논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리라는 전망은 없다. 그것은 백두산에 관한 심상이 대체로 「백두산의 찬양과 고무」에서 우러나왔거나 아니면 역사적, 지정학적 상처의 치유라는 공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백두산에 대한 찬양과 고무는 시기적으로는 해방전, 공간적으로는 북한과 연변의 시에서, 역사적, 지정학적 상처로서의 백두산의 묘사는 시기적으로는 분단 이후,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한국에서의 서정시에서는, 민족정신의 상징으로서의 백두산의 시적 형상화와 백두산을 역사적 상처로 보고 그에 대한 민족적 자괴감과 사죄의식을 노래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과 수교 이후 빈번해진 홍행으로서의 백두산 기행에 대한 비판과 풍자로서의 시가 90년대 이후에 수 편 발표되었다.

셋째, 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시에서는 민족의 영산으로서의 숭엄함과 아버지 이미지로서의 백두산의 형상화가 압도적이다. 이는 일종의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백두산에 대한 외경감과 겨례의식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에 그러한 시에서는 시적 승화가 약화된 느낌이 짙다.

넷째, 서사시로서의 백두산의 시화는 북한에서 조기천의 「백두산」과 한국에서의 고은의 「백두산」이 있어, 이 두 작품은 분단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면서 한국 근대사의 숨겨진 이면사까지 함축하는 비중있는 작품이며, 「백두산과 문학」을 함께 고찰할 때 이 두 작품은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에 있어서의 역사적 사실(史實)과 고증이 얼마나 충실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바로 문학적 성과와 직결될 수 있으

냐 하는 문제는 재론의 여지를 남긴다. 그러기에 이 두 편의 전작 장편 서사시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을 요한다.

그러나 백두산의 문학적 성과를 논의할 때 그 논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든 「백두산」의 시적 형상화는 우리의 역사, 특히 분단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우리의 숙고의 대상이 됨은 틀림이 없다.

참 고 문 헌

한국시대사전, 을지출판공사, 1989

최남선, 백두산 근참기, 조선일보사, 1989

조윤제, 한국문학사, 을유문화사, 1959

박봉우 시집, 휴전선, 1957

오타번 시집, 1미터의 사랑, 시와시학사, 1999

임영조 시집, 혼들리는 보리밭, 문학사상사, 1996

한국문학작품선, 한국문예진흥원, 1994, 1995, 1996, 1997, 1998

Emerge 2호, 중앙일보사, 1999

유안진 시집, 누이, 세계사, 1997

창작과 비평, 1998, 가을호

조선문학(북한), 1985, 3월호, 1990, 3월호

천지(연변), 1998, 7

연변문학, 1999, 3월, 4월, 7월호

조선문학통사,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1959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인동, 1988)

고은, 장편서사시 「백두산」 1권-7권, 창작과비평사, 1987-1994

조기천 서사시 「백두산」 실천문학사, 1989

시안, 1999년 가을호